

미니블로그 트위터(Twitter) 인기

[Issue Brief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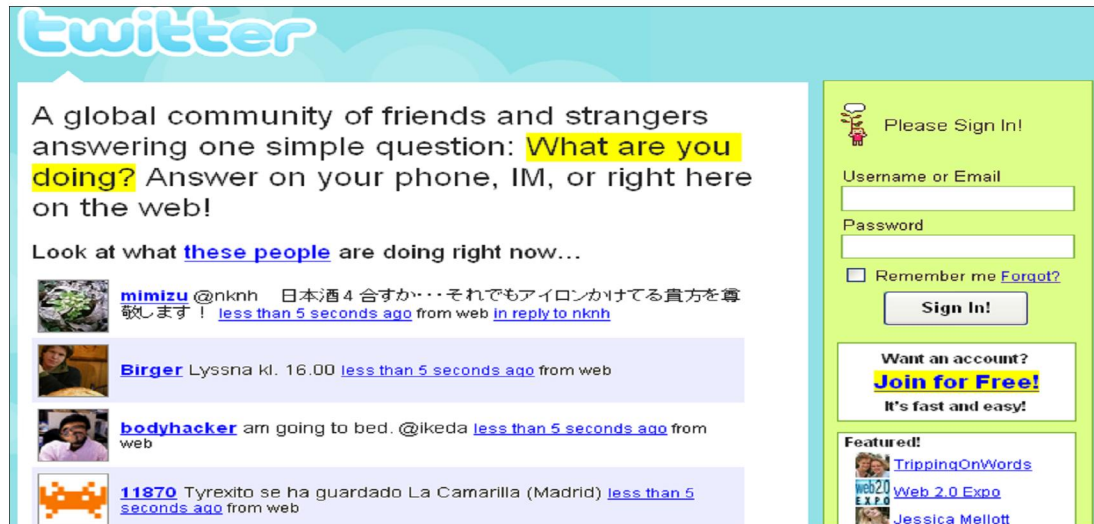
- 휴대전화와 블로그가 결합된 폰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(<http://twitter.com>)가 최근 유튜브와 마이스페이스를 이을 유망 서비스로 예고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음

[Issue Plus]

- 트위터는 현재의 자신의 근황을 간단한 메모로 올리는 것으로 다른 네트워킹 사이트처럼 자신의 메모들을 친구들과 공유가 가능함
 - 트위터(Twitter)는 싸이월드와 같은 미니홈피에 메신저,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기능 등을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음
 - 블로그의 경우 많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, 뭐하고 있나요?(What are you doing?)라는 주제에 간단히 댓글을 다는 형태로 진행
 -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작성하는 사이트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미대선 후보인 존 에드워드 의원, 클링턴 미국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는데 이용함에 따라 더욱 유명해지고 있음

- 다른 네트워킹 사이트처럼 트위터 역시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친구들을 자신의 페이지로 초대할 수 있고, 소수의 사람만으로 접속을 제한 시킬 수도 있음

< 트위터 <http://twitter.com> >



- o 한번에 올릴수 있는 메시지는 140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, 하루 2만개 정도였던 메시지 건수가 7만개까지 3배 이상 증가
- 사용비는 무료이지만 휴대폰 이용시엔 건당 10센트 부담, 가장 큰 트위터의 장점이라면 간명한 내용의 작성으로 이점이 최근의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네티즌으로부터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분석됨
- o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오비어스(Obvious)가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게 된 트위터는 서비스 시작 당시에는 인기를 끌지 못하다 컨퍼런스에서 블로거들의 이용으로 인기몰이를 시작함
- 트위터 텍사스에서 열린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(South by Southwest) 기술 컨퍼런스에 참가한 블로거들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소식을 중계하면서 이용자가 급증

- 사람들은 기술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킹, 블로깅, 휴대전화등 모두 복합된 서비스를 원하고 트위터의 경우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분석됨
- o 온라인에서 히트를 칠만한 차세대 서비스로 트위터가 선정되는가 하면 신문들은 트위터가 큰 인기를 모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(Youtube)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(Myspace)의 뒤를 잇는 인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견함

[View Point]

- o 우리나라에서도 트위터와 유사한 형식의 미니 블로그인 미투데이(me2day.net)와 플레이톡(playtalk.net)이 출시, 새로운 형식으로 인해 국내 블로거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고 있음
- o 최근 트위터에 갑작스런 이용 증가와 함께 새로운 기능 추가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트래픽 증가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함

[Reference]

- o 파이낸셜뉴스, “트위터, 유튜브 인기 이을것”, www.fnnews.com, 2007. 03. 26
- o 경향신문, “유튜브 다음 주자 휴대폰 미니 블로그”, <http://news.khan.co.kr>, 2007. 03. 26
- o Time, "Why Everyone's Talking about Twitter", www.time.com, 2007. 03. 27